

# KU SEJONG

w e

a r e

t h e

[NEXT]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2511 Sejong-ro, Sejong City, 30019, Korea

T. +82-44-860-1114  
F. +82-44-860-1048

s.korea.ac.kr  
sejong.korea.ac.kr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2025 VOL. 52

# CONTENTS

## KU SEJONG 2025 Vol.52

**발행인** 양지운  
**편집인** 김정학  
**발행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편집실** 대외교류팀  
 Tel. 044-860-1403  
 Fax. 044-860-1004  
 E-mail. kuszine@korea.ac.kr  
**기획** 대외교류팀  
**취재·사진** 대외교류팀  
 KUS-ON 학생홍보기자단  
**디자인·제작** 내일날씨 (02-334-1215)

※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대외교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OVER STORY & KUS SUCCESS

04 교육·연구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도약하다  
 제20대 양지운 세종부총장

06 세종RISE 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여는 지역혁신의 미래

08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

12 끊임없는 열정으로 빙상을 달리다  
 \_쇼트트랙 국가대표 장성우 선수

13 끝까지 해내는 끈기로, 세계 무대를 향하다  
 \_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장유진 선수

14 전자·정보공학과 이재우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15 고려대 세종캠퍼스 졸업생 2명,  
 세종시 해외유학생으로 선발돼 2년간 1억 원 지원받는다

## RESEARCH

16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자연과학연구소 윤효직 박사,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수확 저비용 고효율 기술 실현

17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소순애 교수 공동연구팀, 개봉 없이 식품 신선도 확인 가능한 'SERS 기반 신속성 센서 플랫폼' 개발

18 고려대·KAIST 공동연구진, 피부 밀착형 동작 센서 개발... VR/AR 몰입도 극대화

## GLOBAL KUS

20 끝없는 해안선과 푸른 하늘 아래, 플로리다에서 펼쳐질 교환학생의 꿈  
 \_미국 University of West Florida를 만나다

22 문화와 혁신이 흐르는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꿈꾸다  
 \_프랑스 SupBiotech를 만나다

24 문화의 다리를 건너, 성장의 길을 걷다  
 \_중국 유학생 Song Xiuying을 만나다

## 창업 STORY & KUS STORY

26 카메라 한 대로 구현하는 실내 자율주행의 미래, 고비용 장벽을 낮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다

28 AI 기반 식품 법령 어시스턴트, 식품 개발 현장의 혁신을 이끌다

30 미래 신약 개발의 씨앗, 함께 여는 새로운 시작  
 \_첨단융합신약학과 첫 신입생들을 만나다

32 작은 나눔이 큰 울림으로, 세종사회봉사단의 발자취  
 \_KUSSO 6기 조여정·한현정을 만나다

## KUS SKETCH

34 Photo KU, 사진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KUS STUDY & KUS TODAY

36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지식 나눔으로 지역과 동행하다

37 넥스트 인텔리전스 기반 교육 혁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이끈다

38 KUS TODAY

## 아름다운 기부

42 1억 원 기부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_미선장학회 박선원 이사장

43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_리서치멘토(주) 객장열 대표이사

44 34년의 배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다  
 \_박정희 교수님 연구실 졸업생 일동

45 신입생이 함께한 학생회관의 새 시작  
 \_25학번 박지형·이은혜 학우

46 학생회관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 기부  
 \_엘애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

47 학생회관 리모델링,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다

48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교육·연구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도약하다

제20대 양지운 세종부총장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학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어내며 연구와 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 올해 개교 45주년을 맞이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이제 비수도권 최고의 사립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 제20대 세종부총장으로 취임한 양지운 부총장을 만나 그가 바라보는 비전과 교육 혁신에 대해 들어보았다.

### Q.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부총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세종부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의 본질에 집중해왔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산업의 상생을 위해 도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LINK, RIS, BK21, 반도체특성화, SW 중심대학, RISE 등 주요 정부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교육·연구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Q. 올해로 개교 4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부총장님만의 비전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초지능 사회의 도래와 학령인구 급감은 우리 대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OECD와 WEF는 향후 5~10년 내 일부 전문직까지도 AI 및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세종캠퍼스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고교 졸업자는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해, 전체 대학 총원율이 60%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종캠퍼스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Q. AI·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교육 혁신은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학과를 대상으로 AI 융합 전공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확인되면 교원 총원과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거 기획처장과 교육혁신원장 시절 도입한 'SEMO class'는 세종캠퍼스를 대표하는 flipped class 모델로 정착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세종캠퍼스만의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Q. 대학의 연구와 혁신 측면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분야나 방향은 무엇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세종캠퍼스는 연구비 수주액과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에 견줄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AI 및 융합 기술 기반 신산업 분야 연구에 집중해 세종캠퍼스가 변화의 최전선에 서는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수와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단순 행정에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 시간표와 강의실 배정, 규정 검색과 문서 요약, 평가 지표 산출과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AI가 지원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Q. 우리 대학만의 강점과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종캠퍼스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의 위기 이후 세 차례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부실 이미지를 벗었고, SEMO class 정착을 통해 교육 혁신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부 사업 수주와 연구 성과를 통해 경쟁력을 증명해왔습니다. 더불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등을 통해 신(新)수도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다면 세종캠퍼스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Q. 부총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좋은 리더는 단순히 성과 지표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의 활력과 사기를 북돋우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표 중심의 단기 성과보다 교수와 학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해 단순·반복적 업무를 줄이고, 교수와 직원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Q. 앞으로 우리 대학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저는 세종캠퍼스가 비수도권 최고의 사립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캠퍼스 입주를 추진하고, 전 학과에 AI 융합 학과와 융합전공을 신설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브랜드 가치, 세종시의 신수도권 위상, 세종캠퍼스의 AI 융합 교육 모델이 결합한다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Q. 교내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세종캠퍼스를 만들어온 주역은 교수님, 직원, 학생, 동문 모두입니다. 앞으로는 지표와 실적 중심의 행정보다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학사·진로 상담과 생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교수님들에게는 연구비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경감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선생님들에게는 AI 기반 행정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면 세종캠퍼스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세종RISE 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여는 지역혁신의 미래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세종시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수행 대학 다섯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5개 단위 과제 모두에서 주관 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한누리 캠퍼스 구축 및 운영, 제도 정비, 교과목 개설과 운영, 계약 학과 신설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세종시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4개의 핵심 과제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 세종RISE 사업을 통해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의 허브로 도약하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세종시가 지정한 6대 미래전략산업 가운데 미래모빌리티, 정보보호, 양자 등 세 분야의 주도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한 세종시가 추진하는 5개 단위 과제 모두에서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며 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 양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는 단순한 사업 참여를 넘어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세종시가 추구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한누리 캠퍼스'로 세종시를 하나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세종RISE 사업의 시그니처 과제인 '한누리 캠퍼스' 구축·운영의 핵심 참여 주체로 선정됐다. '한누리 캠퍼스'는 세종시 내 모든 대학의 강의 및 연구 장비, 기숙사, 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단일 캠퍼스처럼 운영하는 혁신 플랫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강의 및 시설을 공유하는 체계를 제공하고 인적·물적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세종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연결해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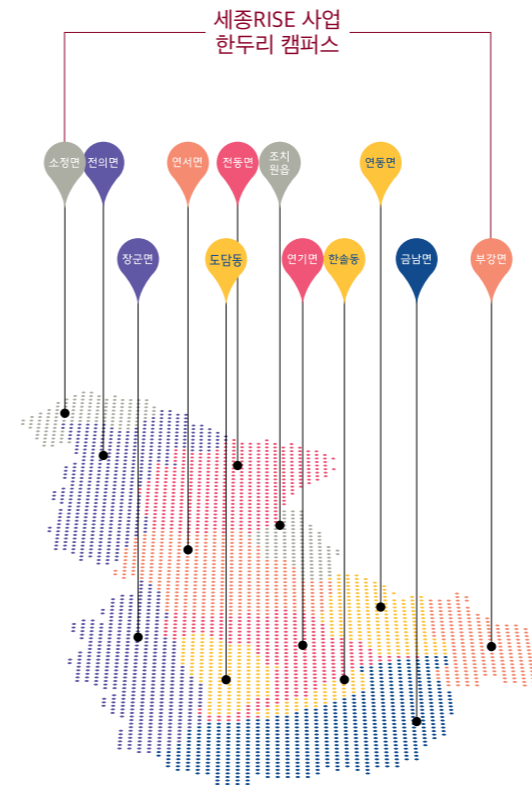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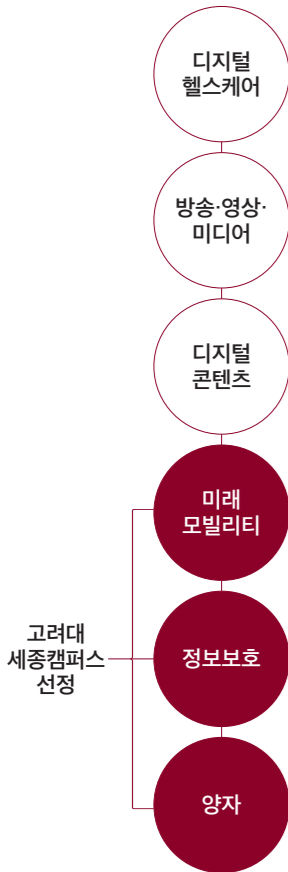
## 교육 혁신

2025년에는 참여 대학 간 제도 정비와 교과목 개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교과목 개설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종시 내 다양한 대학의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 실험실·도서관·세미나실 등 시설과 연구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의 선택권 확대, 학술 교류와 융합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공·교양 과목 다양화 등 다각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6대 미래전략산업



## 계약 학과와 채용 연계형 계약 랩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RISE 사업 단위과제 중 하나인 '미래전략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호, 디지털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관련 계약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수요에 맞춘 대학원 연구실 중심의 채용 연계형 계약 랩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미래모빌리티·정보보호 분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계약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함께 만드는 세종의 미래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정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16개의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거쳐 이를 네 가지 핵심 과제로 재구성했다. 여기에는 △미래인재 성장 기반 교육·보육 통합 지원 연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시스템 기획 △미래지향 도시환경 구축 및 모빌리티 혁신 연구 △지역 기반 스포츠·상권 활성화 및 복합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앞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산·학·연 공동연구, 평생 교육, 지역 문제 해결을 포괄하는 통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전략산업 선도 및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율 제고와 인구 유입 촉진, 스마트 시티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IBERTAS · JUSTITIA · VERITAS



##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미래 혁신 대학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 △교육 △산학 △대학경영 네 가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행정 주도적 입지와 국가 R&D벨트 연계, 그리고 AI·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삼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이라는 VISION 2030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연구 환경 속에서 세종캠퍼스가 새롭게 설정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인공지능 확산, 국가 R&D 체계 개편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수도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로서의 입지, 오송·대덕 R&D벨트와의 연계, 자율주행·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존의 연구·교육 표준을 계승하면서, 세종만의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비전은 그간 축적해온 문제 해결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도약(Leap-Up)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4대 전략방향과 실행 계획

VISION 2030은 연구, 교육, 산학, 대학경영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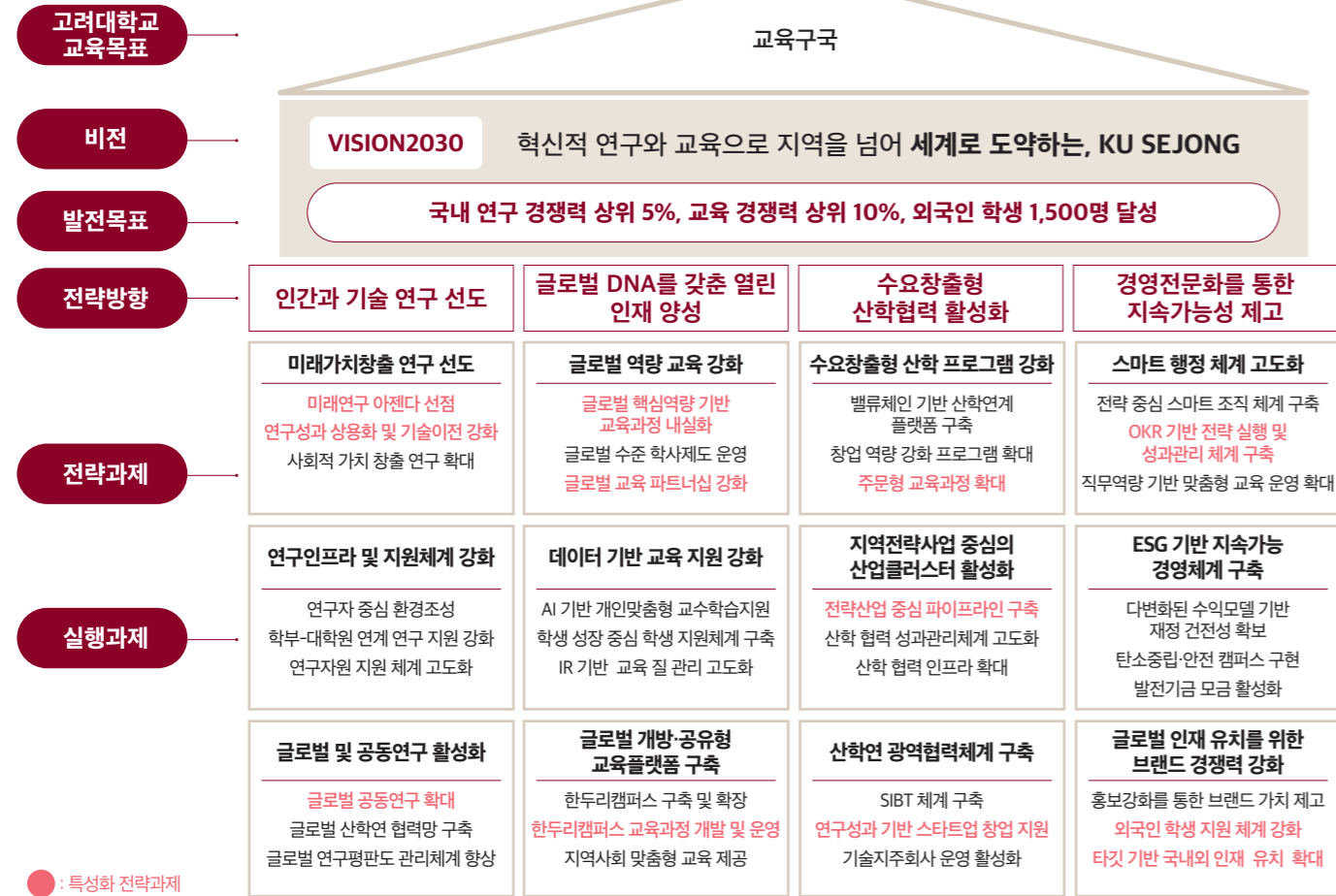
먼저 연구 분야는 인문사회와 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둔다. 세종캠퍼스의 높은 연구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BK21 대학원혁신사업(2025~2027)과 연계해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글로벌 DNA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모든 학생이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국제 협업 능력을 기본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고, 전 학과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국제화 프로그램, 현장 중심 산학교육, ESG 교육을 확대하여 세계 어디서나 경쟁력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산학 분야는 수요 맞춤형 산학 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 실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 교육 연구와 연계하는 혁신 체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세종산학협력단 산하에 미래전략산업연구원(SIBT)을 설립하여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책연구기관·산업체·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경영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예산·성과 관리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화를 강화한다. 대학 IR 기능을 고도화하고 KPI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며, AI 기반 행정체계를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 2030 비전하우스



### 기존 비전과의 차별성

기존 VISION 2025/2025+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VISION 2030은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의 목표가 내부 안정화였다면 이번 비전은 세계적 연구·교육 허브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

VISION 2030은 단기적 과제가 아닌,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장기 전략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추진체계, AI·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단계별 성과를 점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세종시와 인근 연구 기관, 산업체, 해외 대학과의 협력 확대, 안정적 재정 확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구성원 역량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종캠퍼스는 이미 차별화된 경쟁력과 특성화를 갖춘 강소대학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35년 대학 위기가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충분히 성장과 도약을 이어갈 수 있다. VISION 2030은 단순한 문서상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살아있는 비전'이다. 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종캠퍼스의 진정한 도약이 실현될 것이다.





## 끊임없는 열정으로 빙상을 달리다

### 쇼트트랙 국가대표 장성우 선수 인터뷰

쇼트트랙 국가대표 장성우 선수(국제스포츠학부 21)는 어린 시절 아이스링크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을 세계 무대의 성취로 이어가고 있다.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남자 1,000m 금메달과 혼성 2,000m 계주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세계 선수권 및 월드컵 무대에서도 꾸준히 활약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빙상을 달려온 장성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장성우입니다. 쇼트트랙은 짧은 빙상 트랙을 여러 바퀴 도는 경기로, 순간적인 스피드와 치밀한 전략이 어우러지는 스포츠입니다.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는 긴장감 덕분에 보는 재미가 크고, 선수들의 집중력과 순발력이 빛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 Q. 쇼트트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5살 무렵 무더운 여름,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 아이스링크를 찾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저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방학 특강을 통해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Q.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링크장 훈련을 위해 서울과 진천선수촌을 오가는 통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없는 날에는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계획을 조율했고, 때로는 오전 훈련을 마친 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다시 오후 훈련장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로서의 꿈과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은 모두 저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팀플이나 학우들과의 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고학년이 되면서 골프부 활동을 통해 선배들과 더 두터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다양한 수업 속에서 교수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학우분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 Q.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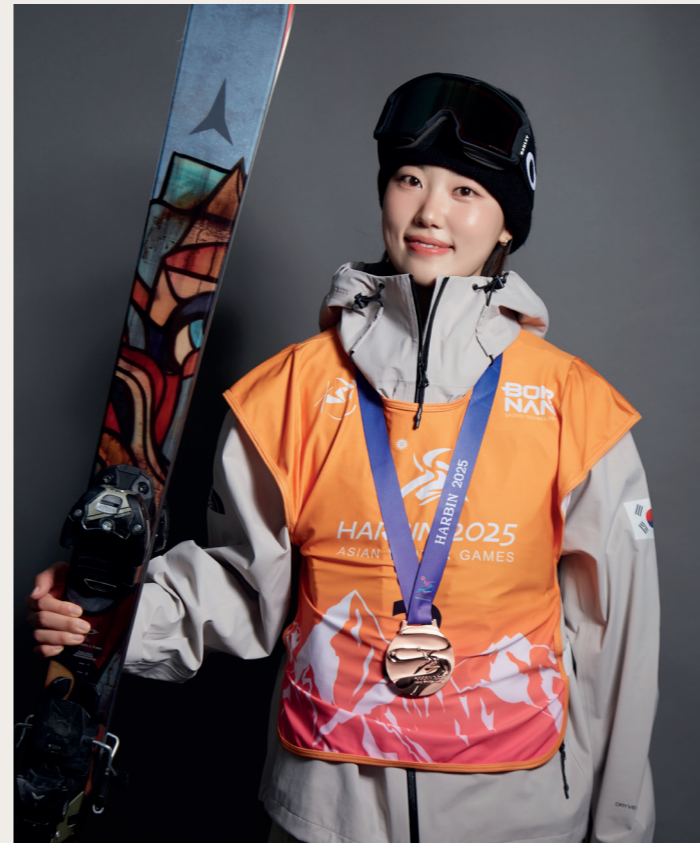
고려대학교는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도 오랜 전통과 큰 성과를 이룬 학교입니다. 그 안에서 저 또한 좋은 성적을 내어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인들이 가진 강한 유대감은 저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음 스텝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2030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체계적인 몸 관리와 기술적, 멘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 Q. 후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 시절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특히 좋은 학우들과 함께 경험을 쌓으며 고대인의 유대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 끝까지 해내는 끈기로, 세계 무대를 향하다

###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장유진 선수 인터뷰

프리스타일 스키하프파이프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장유진 선수(국제스포츠학부 20)는 처음 스키를 접한 후 불과 3년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 도전해왔다.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그는 한국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첫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끝까지 해내는 끈기'로 자신을 정의하는 장유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프리스타일 스키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장유진입니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기술을 펼치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스피드보다는 퍼포먼스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 Q. 스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삼촌을 따라 처음 스키장을 갔어요. 그때 처음 탄 스키가 프리스타일 스키였고, 함께 타던 오빠들이 이미 점프와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점프부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느낀 스릴감이 잊히지 않아 계속 도전했고, 결국 3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 Q.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국제 대회를 경험하면서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나라 선수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환경과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각과 어학 능력을 갖춘 스포츠 인재'를 키우는 국제스포츠학부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학과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들은 스포츠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 Q.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늘 되새깁니다. 선수로서의 경험을 경기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확장해 '스포츠'를 더 넓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훈련이나 부상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강의를 통해 직접 배우는 과정이 의미가 큼니다. 교수님들의 지도도 큰 힘이 되는데요, 특히 김상호 교수님께서 늘 응원해주셔서 학업과 운동 모두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Q. '유망주'라는 타이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별한 재능보다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를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은 늘 과분하게 느껴지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하프파이프 종목의 선구자로 불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Q. 후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운동이든 학업이든 당장은 힘들어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며 꾸준히 걸어갈 바랍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시간이 결국 값진 자산이 된다는 걸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자기 속도로 꾸준히 나아갈 응원합니다.

####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다가오는 2026 밀라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후회 없이 펼쳐내고,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전자·정보공학과 이재우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이재우 교수가 지난 12월 27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 재정 지원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단독형'에서 교육 부단장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재우 교수의 이번 수상을 통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첨단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 구축 공로 인정... 첨단산업특성화대학 재정 지원사업 유공자 선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자·정보공학과 이재우 교수가 '2024 첨단산업특성화대학 재정 지원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우 교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수행 중인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단독형'에서 교육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해당 사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우 교수는 교육 부단장으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교육과정 고도화, 기업 수요 기반 실습 강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며 반도체 분야 특화 교육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4 특성화 유니위크'의 주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교육 의지 고취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행사 기간 동안 스기업 직무 설명회 △석학 강연회 △반반 콘서트 △멘토링 존 등이 진행되어, 실무 교육과 커리어 개발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재우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이 만든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대 세종캠퍼스 졸업생 2명, 세종시 해외유학생으로 선발돼 2년간 1억 원 지원받는다

### 최대 2년간 총 1억 원 유학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마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졸업생 2명이 '세종시 해외유학생 장학사업'에 최종 선발되며, 최대 2년간 총 1억 원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이 장학 사업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우수 인재가 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 1명이 선발된 바 있다.



이번 장학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난 7월 8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고려대 세종캠퍼스 졸업생인 정민휘(고교미술사학과 대학원 졸업), 강민지(문화스포츠대학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졸업) 학생이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민휘 학생은 2026년부터 일본에서 고고학 박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으로, 고대 금속 공예의 원료, 제작 기술, 유통 경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실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그는 한국 금속 공예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향후에는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술이 동아시아 및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강민지 학생은 영국의 광고·홍보 분야 석사 과정 진학을 준비 중이다. 석사 과정 동안 데이터 분석 역량과 창의적 기획 능력을 함양하여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심층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유학 이후에는 한국에서 광고 기획자 및 데이터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며,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단순한 유학 지원을 넘어, 세종시가 지역 내 우수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 협력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꾸준히 배출할 계획이다.

##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자연과학연구소 윤효직 박사,

###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수확 저비용 고효율 기술 실현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



자연과학연구소 윤효직 박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 백승필 교수(교신저자)와 자연과학연구소 윤효직 박사(제1저자) 연구팀이 실증형 규모에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경제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연료용 바이오매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련 논문은 농업공학 분야 국제 저널 'Bioresource Technology(IF 9.7)' 2025년 2월호에 게재되었다.

\*바이오매스: 생물체에서 얻은 유기물로, 연료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생 가능 자원

미세조류는 기존 1·2세대 바이오매스보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최대 100배 높고,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산업의 경제적 상용화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특히 수확 공정은 전체 생산비의 20~30%를 차지해 가장 큰 기술적 과제로 여겨진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존공기부상(Dissolved Air Flotation, DAF) 공정과 스크류 프레스 여과(Screw Press Filtration) 공정을 결합한 다단 수확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 원심분리나 막 여과 방식이 에너지 소비와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 반면, 새로운 공정은 에너지 소비를 약 60% 절감하면서도 하루 4톤 이상의 미세조류를 연속 수확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은 하루 최대 10톤까지 처리 가능한 실증형 규모(Pilot Scale)로 구현되었으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심상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대규모 미세조류 광배양기와 연계하여 배양부터 수확까지 통합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백승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백 톤 규모의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공정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 기술로, 미세조류뿐 아니라 타 미생물 기반 바이오매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arbon to X(CtX) 기술 개발 사업과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RLRC)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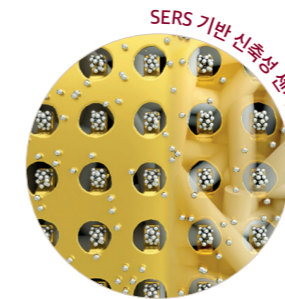


소순애 교수 공동연구팀,

### 개봉 없이 식품 신선도 확인 가능한 'SERS 기반 신속성 센서 플랫폼' 개발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 조교수



SERS 기반 신속성 센서



제어계측공학과 소순애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박사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양진혁 학부생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하지환 조교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소순애 교수 공동연구팀이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기반의 신속성 센서 포장재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포장을 열지 않고도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의 품질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식품 유통 및 보관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연구 결과는 재료·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Small'(IF 13.0) 2025년 호에 게재되었으며, 뒷면 표지(Back Cover)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미세 섬유 위에 나노전사인쇄 공정을 적용한 '섬유 상 미세 구조체 정전기적 직접 전사기술'을 활용해 고감도 SERS 센서를 제작했다. 이 센서는 빛의 산란을 이용해 미량의 분자까지 검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의 영양 성분, 부패 정도, 유해 물질 존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고신축성 기능성 소재를 섬유화하여 항균성과 신속성을 갖춘 식품 포장재를 개발하고, 이를 SERS 센서와 결합해 다양한 식품에 적용 가능한 유연 센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접근법은 기존 SERS 센서의 낮은 실용성과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된 센서 포장재는 유통·보관 중 식품의 품질 변화를 포장지 자체가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포장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부패 여부나 유해 물질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에 내장된 항균 기능이 부패를 지연시켜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도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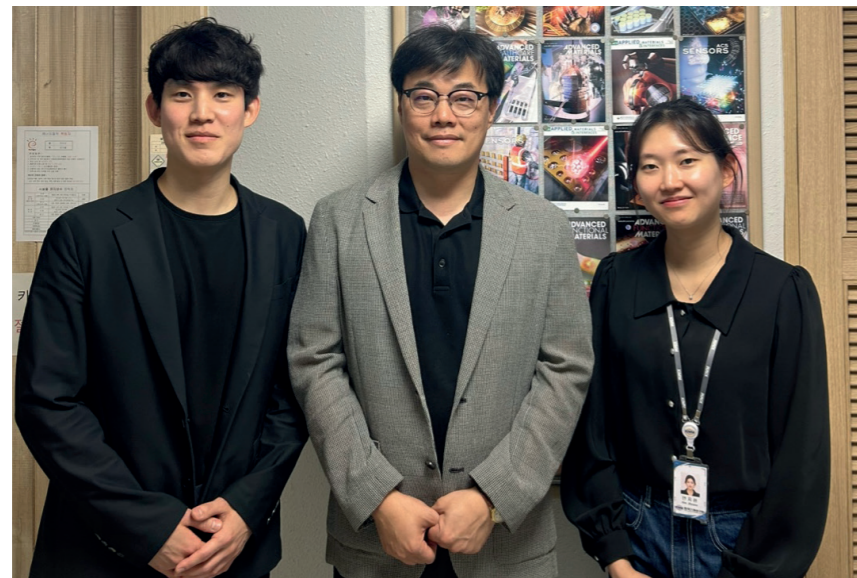
이번 연구에는 국립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하지환 교수(공동 제1저자),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양진혁(공동 제1저자), 김도담(공동 저자) 학생이 참여했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박사, 고려대 소순애·안준성 교수는 연구를 공동 지도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향후 식품 유통 현장의 신선도 모니터링과 안전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식품 폐기물 감소와 소비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RS-2025-00523026, NRF-2022R1C1C2009430, RS-2025-00517017), 산업통상자원부(RS-2022-00154781, 1415179744, 20019169), 문화체육관광부(RS-2024-00343692), 중소벤처기업부(RS-2025-02311282)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아래 수행되었다.

# 고려대 X KAIST 공동연구진, 피부 밀착형 동작 센서 개발... VR/AR 몰입도 극대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 교수와 KAIST 기계공학과 박인규 교수·안지현 박사과정 연구팀이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피부 밀착형 동작 센서를 공동 개발했다. 개발된 센서는 주요 관절 부위에 부착되어 모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피부 접착 기능 향상 기술을 통해 기존 대비 5.3배 향상된 접착력을 확보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 교수와 KAIST 기계공학과 박인규 교수·안지현 박사과정 연구팀이 공동으로 가상 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몰입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피부 밀착형 동작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국제 재료과학 분야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8.5, JCR 4.1%)'에 게재됐으며, Inside Back Cover 논문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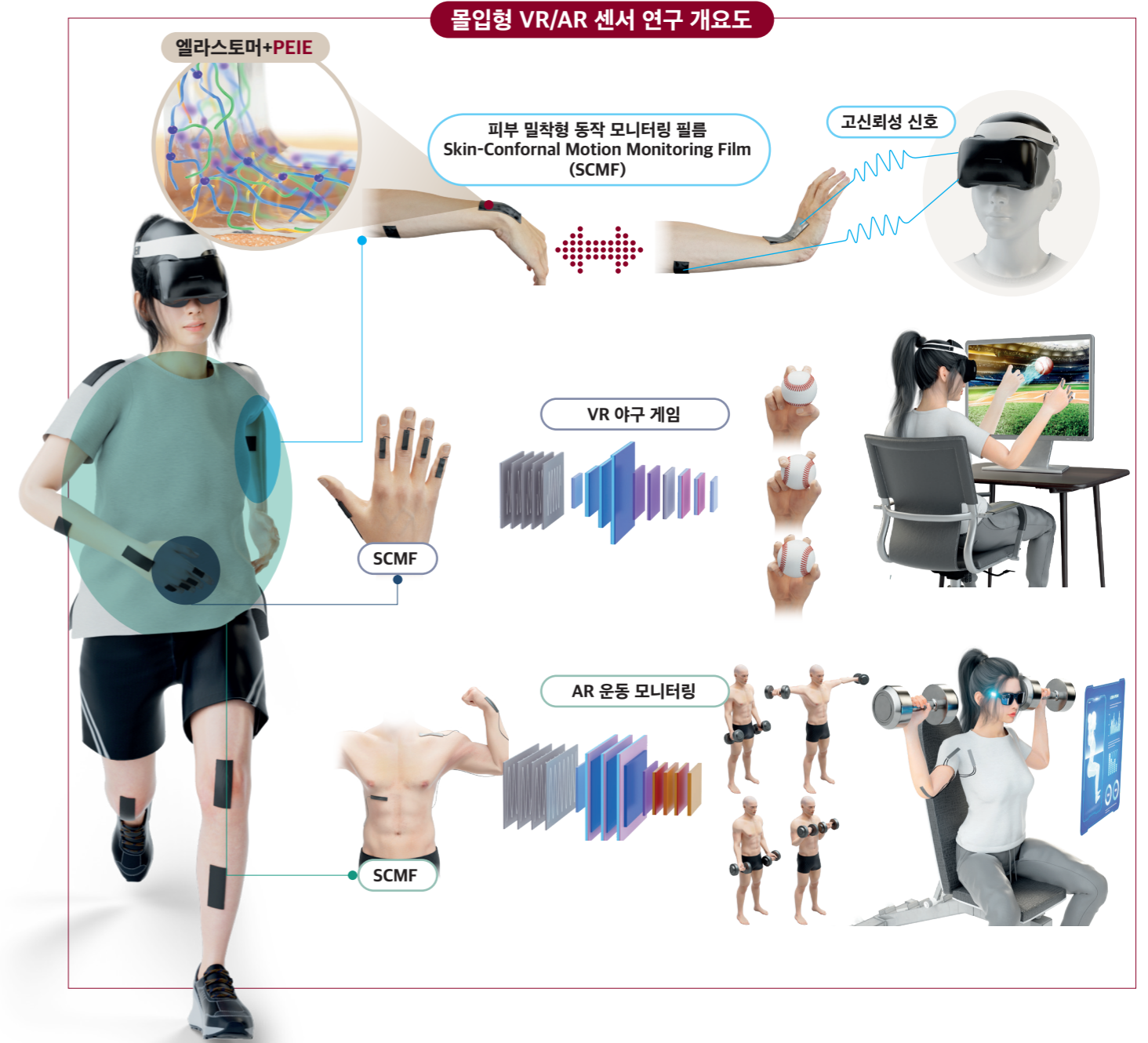


왼쪽부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제어계측공학과 안준성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박인규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안지현 박사과정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SCMF(Skin-Conformal Motion monitoring Film) 기술로, 정전용량 원리를 기반으로 관절의 굽힘과 근육 신장을 정밀하게 감지해 신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카메라 기반 시스템이 겪는 조명 변화나 시야 가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VR/AR 기반 몰입형 콘텐츠에 안정적인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

공한다. 특히 센서의 피부 접착 성능 향상 기술도 주목된다. 연구진은 PEIE(Polyethyleneimine Ethoxylated)를 접착층에 도입하고, 엘라스토머 표면에 미세 주름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대비 5.3배 향상된 접착력(0.0218 N/mm)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땀, 먼지, 반복 사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부착과 신호 측정이 가능해졌다.

개발된 센서는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 주요 관절 부위에 부착해 모션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제 VR 환경에서는 야구 투수의 구종 분류, AR 환경에서는 헬스 운동 자세 분석 시스템으로 응용됐다. 이 시스템은 1D 및 2D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대 99%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준성 교수(제1교신저자), KAIST 박인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안지현 박사과



소재 설계부터 딥러닝 알고리즘, 몰입형 시스템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차세대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특히 안준성 교수는 박인규 교수의 제자이며, 안지현 박사과정은 박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어 가족이자 사제지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와 더불어 개인적 의미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준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재 설계부터 딥러닝 알고리즘, 몰입형 시스템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차세대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2021R1A2C3008742), 우수신진연구자지원사업(RS-2025-00523026),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1415179744, 20019169), 그리고 유연인장 하이브리드 센서 플랫폼 기술 개발(RS-2022-00154781) 과제를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 끝없는 해안선과 푸른 하늘 아래, 플로리다에서 펼쳐질 교환학생의 꿈

### 미국 University of West Florida를 만나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위치한 University of West Florida(UWF)는 1963년에 설립된 공립 대학교로,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UWF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 그리고 양교 간의 교류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University of West Florida

#### UWF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West Florida, UWF)는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부의 해안 도시 펜사콜라에 위치한 공립 종합 대학교입니다. 현재 약 13,000명의 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생들은 따뜻한 지역 사회, 아름다운 멕시코만 해변, 풍부한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수업과 밀착 지도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인턴십, 봉사 활동,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UWF의 주요 교육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나요?

UWF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융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보안, 환경 과학, 보건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현실(VR)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사이버 방어 교육 우수기관(CAE-CD)으로 지정받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 연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수진과 함께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UWF의 위치, 학습 환경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UWF는 멕시코만과 인접해 있어 카약, 하이킹, 해변 활동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캠퍼스는 약 1,600에이커(약 650만m<sup>2</sup>) 규모로 자연 속에서 학습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규모 강의로 교수와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물론,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되는 등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캠퍼스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학업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생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UWF는 학생들의 학업,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을 위한 'Argo Arrival'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 개발 서비스와 인턴십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Global Quarter'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며, 다양한 국

가와 사회적 교류를 장려합니다.

저희의 캠퍼스 문화는 음력 설 축제, 글로벌 블록 파티, 일본 문화의 날 같은 다채로운 행사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UWF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UWF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글로벌 이해 증진과 학문적 우수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교 모두 국제 교육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화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지향합니다. 이처럼 양교는 상호 존중과 협력, 학생 중심의 교류라는 공통된 비전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탄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UWF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과학, 기술, 경영 분야의 연구 중심 교육을 실현하며, 최신식 교육 시설과 글로벌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캠퍼스 문화는 교환학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경영, 기술, 언어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과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지 학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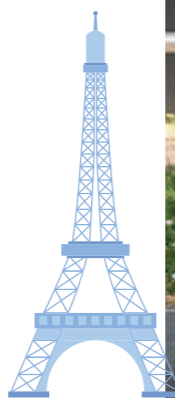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다녀온 학생들의 전반적인 소감이나 리뷰는 어땠나요?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 훌륭한 교수진, 포용적이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현지 학생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평생 이어질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 문화와 혁신이 흐르는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꿈꾸다

### 프랑스 SupBiotech를 만나다

SupBiotech는 2004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생명공학 특화 교육 기관이다. 과학과 공학, 경영과 국제 협업 능력을 통합한 다학제 교육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생물학, 재생의학, 바이오 생산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의 혁신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SupBiotech가 가진 교육의 강점과 캠퍼스 문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협력 관계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SupBiotech

#### SupBiotech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SupBiotech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사립 공학 대학으로, 생명공학 (Biotechnology) 분야에 특화된 교육 기관입니다.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물학, 공학, 경영, 그리고 국제 협업 능력을 두루 갖춘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upBiotech는 바이오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과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글로벌 감각까지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SupBiotech의 주요 교육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나요?

가장 큰 교육적 특징은 기초 이론 교육과 실무 중심의 훈련을 조화롭게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유전학, 바이오정보학 등 생명공학의 핵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동시에 다양한 실험실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전공에 머무르지 않고 공학, 경영, 창업, 산업 응용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융합형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과 연계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다.

SupBiotech는 현재 합성생물학, 재생의학, 바이오 생산기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한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SupBiotech의 학습 환경의 장점에 대해 알려 주세요.

SupBiotech는 파리 대도시권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활발한 학문적·문화적·산업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는 최신 실험실과 협업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소규모 수업과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더욱 밀도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오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실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SupBiotech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SupBiotech의 대학 문화는 활기차고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며 과학뿐 아니라 문화, 창업,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SupBiotech는 국제 협업, 인턴십, 소프트 스킬(의사소통·협업 능력 등) 개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SupBiotech의 대표 프로그램인 'SBIP(SupBiotech Innovation Projects)'는 학생들이 직접 생명공학 솔루션을 개발해보는 프로젝트로, 실제 기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캠퍼스 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 SupBiotech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SupBiotech는 모두 우수한 학문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화 지향,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더욱 심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직접 경험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SupBiotech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우수성, 연구 수준,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높은 평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SupBiotech의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특히 국제 학생을 환영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학문적 성장과 문화적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는 학생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다녀온 학생들의 소감은 어땠나요?

많은 학생들이 교직원과 현지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 아름다운 캠퍼스 환경, 그리고 수업의 높은 질을 인상 깊게 언급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학문적 역량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교우 관계를 맺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교환학기를 넘어,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향후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의 다리를 건너, 성장의 길을 걷다

### 중국 유학생 Song Xiuying을 만나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열린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매년 여러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Song Xiuying 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한국 대학 생활에서 느낀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았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학문적 성취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통해 한·중 간 교류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ong Xiuying이고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전공 지식을 쌓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교육 제도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한국 대학의 깊이 있는 학문적 환경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장차 국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고등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의 생활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작용이 제한적이었고, 교실 분위기 역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 수업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한국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어 학습 과정에서 글쓰기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영역인데, 학문적인 수준의 글을 한국어로 작성한다는 것은 더



욱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한국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찾아 읽으며 형식과 흐름을 익혔습니다. 또한 자주 쓰이는 문법과 표현을 정리해두고, 실제로 적용해 보며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님이나 친구들, 혹은 학교로부터 받은 의미 있는 도움은 있었나요?**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자주 확인해주셨고, 특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 속도를 늦추며 배려해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국제처와 국제 학생 멘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한국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멘토들이 캠퍼스 이용 방법이나 생활 팁,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해 알려주면서 적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한국 생활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생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는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밟아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현안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한·중 간 교류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동시에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제 진로를 구체화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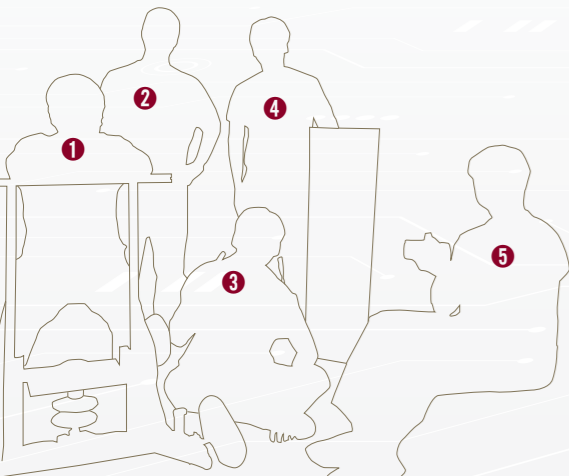
**한국 유학을 고민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수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한국의 수업은 토론과 참여가 강조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교수님과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 한다면 유학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 카메라 한 대로 구현하는 실내 자율주행의 미래, 고비용 장벽을 낮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도로를 넘어 병원, 물류창고, 공장 등 실내 환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3D LiDAR 센서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은 비용과 규모 면에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창업동아리 '다가치'는 단일 카메라 기반의 실내 자율주행 기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다가치'의 대표 안수중(전자기계융합공학과 20) 학생을 만나, 그가 그리는 기술과 창업의 미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① 홍수진(전자기계융합공학과 20)
- ② 신유빈(부대표, 전자기계융합공학과 22)
- ③ 안수중(대표, 전자기계융합공학과 20)
- ④ 박건우(전자기계융합공학과 20)
- ⑤ 박규태(전자기계융합공학과 21)

### '다가치'는 어떤 팀인가요?

'다가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기술 기반 창업 동아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 소모임에서 시작해 현재는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교내 창업경진대회에 처음 참가하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카메라 기반 주행 모빌리티를 제작하는 기업이자 개척자를 뜻하는 '패스파인더(Pathfinder)'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창업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최종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 아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는 현재 카메라 기반 실내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내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고가의 3D LiDAR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과도한 사양일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큼니다.

이에 저희는 "굳이 고가 센서를 쓰지 않아도 실용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단일 카메라만으로 실내 지도 자동 생성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 방식은 센서 구성을 단순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물류창고, 병원, 공장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교육용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보고 싶

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애 아동 인식 개선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체감했고, 기술이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날까지 저희가 꾸준히 창업과 개발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해당 서비스를 통한 기대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카메라 기반 접근으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시스템을 소형화함으로써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실제 모빌리티 시장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봇과 AI 기술이 특정 전문가나 고비용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용자와 학생들에게까지 폭넓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용 키트를 통해 학생들은 로봇과 함께 학습하며 실생활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차세대 기술 인재 양성과 생활 속 기술 친화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준비과정은 어떠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막연했던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SC 기획 리빙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롤링캠프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받을 수 있었으며 교수님과 행정팀의 실질적인 지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들의 조언과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방향성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고도화해 병원,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실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로봇 기술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국내외 교육 시장에 보급하고, 산업 현장에는 저비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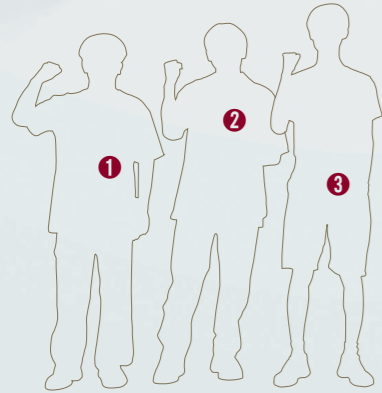
더 나아가, 저희가 개발한 모빌리티를 통해 가상 세계와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로봇을 통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어렵지 않은 세상, 누구나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저희 팀 '다가치'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 AI 기반 식품 법령 어시스턴트, 식품 개발 현장의 혁신을 이끈다

식품 개발 현장은 방대한 법령과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항상 검토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에는 전문가 자문이나 수작업 검토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창업동아리 'FQ'는 AI 기반 법령 어시스턴트 웹서비스 'Foodlaw'를 개발하고 있다. FQ의 대표 김민성(식품생명공학과 23) 학생을 만나, 식품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여정을 들어보았다.



- ① 김주환(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24)
- ② 김민성(팀장, 식품생명공학과 23)
- ③ 조형준(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24)

### 규제 검토의 벽에서 시작된 문제 의식

식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맛과 품질을 넘어, 성분 하나하나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법령은 고시, 공전, 해설서, 공문 등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고, 개정 시점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자료를 찾고 대조하기 위해 수많은 PDF와 엑셀 파일을 오가야 하며, 이 과정만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한결 수월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1인 창업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다. 더구나 사람이 직접 확인하다 보면 최신 법령이 반영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이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현실은 식품을 개발하려는 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창업동아리 FQ 역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벽에 부딪혔다. FQ의 대표 김민성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통합 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곧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 Foodlaw, 성분 입력만으로 규제 검토

FQ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법령 어시스턴트 'Foodlaw'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Foodlaw는 성분을 입력하면 관련 법

령과 표시 기준을 자동으로 분석·매핑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체 성분을 제안한다. 규격표와 라벨링 문서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 성분 수치까지 추정할 수 있다. 효과는 뚜렷하다. 기존 3~5일이 걸리던 법령 검토 과정이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전문가 자문 비용도 백만 원 이상에서 월 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덕분에 소규모 식품업체와 1인 창업자도 부담 없이 규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이 실시간 반영돼 제품 안전성과 규제 준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민성 학생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창업동아리 육성반에 합격했다. 이후 팀과 함께 \*최소 기능 제품(MVP)을 개발하며 공모전 준비도 병행했다.

\*최소 기능 제품(MVP):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제품의 핵심 기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

서비스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식품 개발 커뮤니티에서 150명의 베타 테스터를 모집했고, 인터뷰와 설문 등을 통해 수집한 피드백은 곧바로

기능 개선으로 이어졌다. 법령이 흩어져 있고 최신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라벨과 규격 문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같은 사용자들의 고통은 Foodlaw 기능 고도화로 연결되었다.

### 든든한 학교의 지원

창업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지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웹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창업동아리 지원금으로 정산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필요한 도구 사용료와 자료 제작비도 지원받았다. 도메인 구매와 유료 개발툴 비용까지 보조받으면서 배포·모니터링·협업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동아리 활동 공간과 실습 인프라는 큰 힘이 되었다. 팀 회의와 사용자 테스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촬영과 관찰 등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김민성 학생은 “학교 지원 덕분에 개발·검증·배포 과정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다”며 지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 숫자가 말해주는 확신

FQ팀은 Foodlaw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최소 기능 제품 공개 후 진행된 24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핵심 기능의 유효성을 확인했

고, 158명의 베타 참여 의향과 함께 \*NPS +53.3이라는 지표를 얻었다. 빠르게 ‘모집→인터뷰→피드백 반영’ 사이클을 돌리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표현을 정교화한 것이다.

\*NPS: 고객추천 지수, +50 이상이면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의미

그 결과는 외부 성과로도 이어졌다. 2025 식약처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입선 소식은 팀에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내부 지표로 확인했던 유효성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다. 김민성 학생은 “외부 검증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증거가 되었다”며 정식 출시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 Food RegTech를 향한 도전

현재 FQ팀은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최소 기능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초기에는 B2C 베타 사용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안정화하고, 이후 B2B 파일럿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업계 누구나 스스로 기준을 지키며 빠르고 안전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대표 Food RegTech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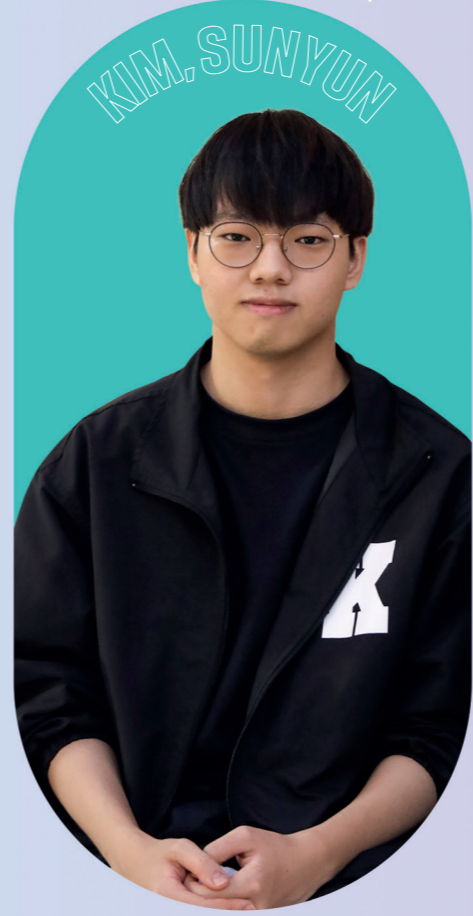




JUNG, UHHYUN



HWANG, MINHYE



KIM, SUNYUN

미래 신약 개발의 씨앗, 함께 여는 새로운 시작

첨단융합신약학과 첫 신입생들을 만나다

2025학년도, '첨단융합신약학과'가 첫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 학과는 2025년 신설된 학과로 혁신 신약 개발을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약학·생명공학·AI·빅데이터를 통합한 다학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갖고 첨단융합신약학과의 첫 시작을 열게 된 신입생, 정우현·김선윤·황민혜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우현:** 첨단융합신약학과 25학번 정우현입니다. 생명과학과 약학에 관심이 많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장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김선윤:** 첨단융합신약학과 25학번 김선윤입니다. 신설 학과의 첫 학생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대되고, 앞으로의 도전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황민혜:** 첨단융합신약학과 25학번 황민혜입니다. 첨단 신약 개발과 융합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있으며, 학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뿌듯합니다.

Q. 이 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우현:** 어릴 때부터 인체와 약물의 작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의 전반을 폭넓게 배울 수 있고, 신설 학과라서 새로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윤:** 저 역시 학창 시절부터 제약 산업과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학과들을 알아보던 중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다' 싶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책임감과 설렘,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때로 불확실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민혜:** 저는 약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가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요즘, 약학 지식에 더해 AI 기반 분석, 데이터 활용 능력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첨단융합신약학과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바이오 산업을 지역의 핵심 혁신 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고,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그 중심에서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학과의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이 명확하게 느껴졌고, 제가 늘 원해왔던 방향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신설 학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들었고,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하나요?

**정우현:** 현재는 기초 생명과학과 화학을 중심으로 기본기를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험 수업과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셔서 학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이 분위기 속에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선윤:** 현재까지는 전공의 기초가 되는 화학과 생물학 수업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수업에서는 학생이 직접 문제 풀이를 발표하고, 사전 영상 강의를 보고 토론하는 등 교수님과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실험 수업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황민혜:** 신설 학과인 만큼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공 기초 과목뿐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 같은 융합 수업도 함께 들으며, 신약 개발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정우현:**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경험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신약 개발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배움의 여정을 통해 조금씩 제 진로를 확고히 다져가고 싶습니다.  
**김선윤:** 신설 학과의 첫 학생인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제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이 되어 학과를 국내 최고의 신약학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황민혜:** 현재는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진행하며 전공 분야에 대해 폭넓게 배우고 스스로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연구나 실무를 접해보고, 어떤 분야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확고하고 세세한 목표를 당장 정하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나가자 합니다.

Q.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우현:**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배우려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즐겁고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김선윤:** 먼저 첨단융합신약학과라는 특별한 곳에 오게 될 후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탐구하며 선배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황민혜:**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학생 의견이 운영에 잘 반영되는 학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학과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단융합신약학과는 미래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AI, 빅데이터, 생명과학 등을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드문 환경이라, 진로를 고민 중이거나 신약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울림으로, 세종사회봉사단의 발자취



KUSSO 6기 조여정·한현정을 만나다

고려대학교 세종사회봉사단(KUSSO)은 봉사를 매개로 학교와 지역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단원들의 전공과 관심사를 결합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록을 남기며 봉사의 의미를 확장하는 조여정(컴퓨터융합 소프트웨어학과 21)과, 단원 전체를 조율하며 원활한 운영을 이끄는 기장 한현정(공공사회학전공 24)을 만나 그들의 봉사 철학과 경험을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여정: 현재 정보부장을 맡아 기획안과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일정 관리, 활동 일지 등 봉사단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봉사단의 모든 활동이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록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봉사단의 발자취가 되고, 이후 활동의 자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한현정: 가·부장단 체제로 운영되는 봉사단에서 기장을 맡아 3명의 부장, 12명의 부원과 함께 기획안·보고서·활동일지 등 서류 검토, 단원 화합을 위한 워크숍·피크닉·간식 행사, 인스타그램·에브리타임·홈페이지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반을 총괄하며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으며, 세종사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진로 체험, 재능 봉사 캠프 행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사회봉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조여정: 봉사를 매개로 학교와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여러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원들의 전공과 관심사를 봉사와 결합해 더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봉사 주제 선정부터 계획, 실행,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단원들이 직접 참여해 봉사가 '주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나눔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한현정: 활동 영역은 크게 교육, 지역 사회, 환경, 캠페인의 네 가지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음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봉사단이 주는 안정감! -현정이

나누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도 반영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단원 4명이 한 팀으로 기획을 꾸려 아이디어 회의부터 활동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소방서·보건소·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Q. 봉사단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조여정: 신입생 시절 학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배 단원들이 직접 기획하며 활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봉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 역량과 아이디어로 봉사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세종사회봉사단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현정: 대학 생활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사를 꿈꿨지만 이후 사회복지 분야로 관심이 옮겨갔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 팬데믹 탓에 봉사 기회가 부족했는데, 세종사회봉사단에 들어와서는 노인·장애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무엇인가요?

조여정: '못난이 밥상'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배우는 봉사였는데, 지역 청소년들



과 함께 이론 교육을 듣고 직접 과일청과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맛과 영양은 같다는 걸 깨닫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적 가치가 큰 활동임을 실감했습니다. 저 역시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원 낭비와 환경 보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현정: 저는 'KUSSO 벽화 봉사'를 뽑고 싶습니다. 과학기술1관 앞 계단 벽화를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시 5기 기장님과 과대님이 밤낮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Q. 학업과 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조여정: 봉사는 저에게 힐링이자 활력을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일상에서도 봉사에만 집중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압박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또 함께하는 단원들과의 격려와 유대감이 큰 힘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현정: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음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이 저에게 준 안정감 때문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공허함을 느낄 때 봉사단 활동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봉사단 활동을 통해 생긴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조여정: 예전에는 봉사를 '남을 돕는 행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사 현장에서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봉사가 진심을 나누는 소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봉사는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한현정: 저는 원래 눈에 보이는 물질적 나눔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면서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따뜻함과 가치가 있음을 배웠고, 앞으로의 삶에서 선택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Q. 봉사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조여정: 봉사는 작은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종사회봉사단에서 함께 맘 흘리며 작은 일부터 해 보시길 권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미소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현정: 단원컨대, 세종사회봉사단이 대학 생활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쌓고, 동시에 삶의 방향성까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있을 7기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Photo KU

## 사진으로 보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제8회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 시상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2월 24일 제8회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고대 세종인상'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발전과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8회를 맞이한 본 상의 수상자는 영림임업(주) 황복현 회장 과 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 정승우 이사장이다.



### 2026 수시박람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정시 입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에게 대입 및 진로·진학 정보 중심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지식 나눔으로 지역과 동행하다

### 배움나눔형 교과로 실현하는 학문과 지식의 사회 환원

‘배움나눔형 교과’는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와 연결해 실천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교육 봉사 또는 문화 체험 등을 진행하며 지식의 사회 환원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움나눔형 교과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미학세미나’와 ‘가치와미래의브릿징’ 교과가 있다.



#### 고려대 세종캠퍼스만의 독자적인 Flipped Class

SEMO(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는 2020년에 개발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독자적인 Flipped Class(온·오프라인 병행 수업)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 형태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 모델이다. 영미학 세미나 및 가치와미래의브릿징 교과 또한 SEMO CLASS의 Type3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온라인 사전학습과 소그룹 토의를 거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자기주도학습으로 확장되는 PBL형 수업이다.

#### 영미학세미나 - AI와 함께하는 창의 글쓰기 체험

‘영미학세미나’에서는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소설 만들기 △AI가 만들어주는 나만의 작품 △AI와 함께 만드는 우리만의 이야기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했으며, AI 사용 윤리와 정보 판별 능력을 함께 교육해 올바른 AI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

#### 가치와미래의브릿징 -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세계시민 성장

‘가치와미래의브릿징’ 교과에서는 중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7~9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 만든 다문화 쿠키 △세계 어울림 한마당

△세계 전통 가면 만들기 등 활동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배웠다.

또한 보람초등학교에 방문해 코코넛 밭기, 투호 놀이 등 전통 놀이 체험을 진행하여 타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낮추고 글로벌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혔고, 문화적 포용력과 표현력, 사회성을 키웠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과 한국 아동이 함께 참여하도록 조를 구성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형 교육

두 교과에서 기획된 활동은 보람초등학교, 중촌종합사회복지관, 전의산단어린이집 등 총 3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과 교육 기획 경험을 제공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만족도는 평균 5.0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일부 아동의 특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배움나눔형 교과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식과 학문이 대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로 확장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대학-지역 상생의 교육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 넥스트 인텔리전스 기반 교육 혁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이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넥스트 인텔리전스(Next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에 나서고 있다. 넥스트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간 고유의 창의성·감성(HI, Human Intelligence)의 융합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산학 협력 프로젝트 및 AI 실습 중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AI와 HI가 융합된 ‘넥스트 인텔리전스’ 기반의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친화형 PBL(Project-Based Learning)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인간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 인식 알고리즘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팔 응용기술 개발 △축제 기획 및 ESG 콘텐츠 제작 등이 대표적 사례로, 2024학년도에는 총 153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28개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Python 기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멘토링 프로그램(T-SUM)’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학생들은 Python 및 생성형 AI 등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 툴의 기초를 배우고, 전공과 융합하여 산학연계 등 실질적 멘토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계별 학습 로드맵 구축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기초 소양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79명의 멘토와 멘티가 팀을 이루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2.3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역시 SW 전공 및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복합도시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AI·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KTX(KUS emerging Technologies eXperience)’ 공동트랙을 마련 중이며, 사업단 자체 교육 플랫폼 e-Crimson을 통해 SW 교육의 대중화와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 편집, 시나리오 창작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AI 영화 ‘걸리버 울도국 여행기’는 제6회 창원국제민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주목받았다. 이는 대학이 제작한 AI 영화가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국내 첫 사례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넥스트 인텔리전스를 위한 혁신을 지속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과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 01



### 고려대 세종캠퍼스-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FIP-FPM@KU) 개소

지난 2월 4일 산학협력관 619호에서 고려대-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FIP-FPM@KU)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첨단신소재기술사업화평가센터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여 공동연구소를 설립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차세대 AI 반도체, 실감형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원천기술 개발과 지역 내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02

### 교수 12명,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속 교수 12명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와 글로벌 학술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2024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 TOP 2% Scientists List)'에 선정됐다. 이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를 활용하여 연구 논문의 피인용 횟수와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매년 발표되고 있다. 202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최상위 2% 연구자는 2023년 2,120명에서 2024년 2,364명으로 244명 증가했으며, 비율이 12%p 상승했다. 이는 세계 15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국내 대학과 정부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 03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재)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글로벌대학 및 RISE 사업 위한 협력 본격 시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재)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사장 한석수)은 지난 4월 8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글로벌대학 및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공동캠퍼스를 기반으로 세종시 및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K-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융합교육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글로벌대학 및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교육, 세미나, 기술교류 등 학술 프로그램 공동 운영 △개방형 첨단강의실 제공 등의 협력을 진행한다.



## 04



###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고려대 세종캠퍼스 소속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가 지난 4월 24일 '2025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ITRC 인재양성대전'에서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유공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황한정 교수는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하며 다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05

## 의인 故 이수현 24주기 추모식 개최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2관 앞 의인 故 이수현 추모비에서 의인 故 이수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24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식은 지난 2001년 1월 26일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고귀한 목숨을 바친 의인 故 이수현(무역학과 93)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 고려대학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세종특별자치시, 지·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는 지난 6월 17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행정관 제1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지·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영 고려대학교 세종부총장 △김현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 소장 등 총 22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생태계 구축, 협력 연구 체계 수립 및 교육·연구 협력,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연구 인력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다.

# 07



##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단 발대식 개최

# 06

지난 5월 26일, 문화스포츠타 5층 유증홀에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와 수요자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7개 기관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반을 갖추는 데 협력할 예정으로, 특히 학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약기관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08

## 고려대 세종캠퍼스, 독일 미래 모빌리티 혁신캠퍼스(ICM)와 손잡고 글로벌 대학 도약 시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지난 7월 24일, 독일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캠퍼스(Innovation Campus Future Mobility, ICM)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교육,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ICM은 2019년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카를스루에공과대학교(KIT)와 슈투트가르트대학교(USTUTT)가 공동으로 설립한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ICM과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연구자 교류 △기술 상용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확장하고, 특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억 원 기부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 미선장학회 박선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박선원 미선장학회 이사장이 '천원의 아침밥'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며 후배들의 아침밥 지원에 나섰다.

'천원의 아침밥'은 물가 상승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조식비 1,000원을 받고 운영하는 학생 복지 사업이다.

박선원 이사장은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고려대에 기부를 이어왔다. 그는 2020년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교우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경상대학 경영학부 장학금 등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해왔다.

박선원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이나 자취 생활 등 여러 이유로 학생들이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다"며 "후배들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리서치멘토(주) 곽장열 대표이사

리서치멘토(주) 곽장열 대표이사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규제과학과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가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함께, 미래 글로벌 규제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멘토(주) 대표이사 곽장열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설계와 데이터 분석 방법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 분석, 연구 설계, 통계 자문을 제공하며 커리어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과학적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을 체감했고, 2016년 리서치멘토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운영, 규제 전략 수립, 과학적 근거 창출, 글로벌 라이선싱 지원까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규제과학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기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사람', 특히 전문 인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 과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는 아직 부족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규제과학과는 학문과 산업을 연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러한 산업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차세대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부'란 무엇인가요?

기부는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꾸준히 기여할 계획이며, 이번 기부는 미래 전문가들의 성장을 돕는 '투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서치멘토는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같은 학문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 그동안 받은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시나요?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규제과학 혁신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산학 프로젝트, 해외 규제 전략을 다루는 실무형 워크숍, 국제 학회 및 해외 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발전해도 국가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에, 결국 깊은 통찰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산업·과학·데이터를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 수집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 데이터와 시장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꾸준한 열정과 학습을 멈추지 않는 자세를 당부합니다. 기술과 환경은 변하지만, 배움을 지속하는 태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리서치멘토 역시 든든한 파트너로서 여러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34년의 배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지다

### 박정희 교수님 연구실 졸업생 일동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 나노소재연구실 졸업생 일동이 박정희 교수님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헌신을 기리고자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 뜻깊은 마음은 '클래스룸 세모 112호'에 설치된 '박정희 창의LAB' 세미나룸 현판으로 남게 되었다. 졸업생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정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소재화학과 나노소재연구실 졸업생 일동입니다. 87학년부터 20학번까지, 34년에 걸쳐 약 70여 명이 한 연구실을 거쳐갔습니다.

#### 졸업생 일동이 함께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교수님께서 평생 교육 현장에서 보여주신 학문적 열정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제자 양성에 기울으신 업적을 기리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클래스룸 세모(Classroom SEMO)에 '박정희 창의LAB' 세미나실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교수님의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길이 전해질 공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교수님과 일화가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단련된 체력을 통해 건강한 연구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며 연구에 몰입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고, 이는 학문에 임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과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WCU(World Class University), BK21(Brain Korea 21)과 같은 대형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리더십 아래 학과 전체가 하나로 뭉쳤고, 그 결실은 신소재화학과의 위상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은 후학 양성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학부생에게는 정규 인턴 과정을 통해 조기 연구 경험을 제공하셨고, 대학원생에게는 세심한 지도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저희가 연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셨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기부가 졸업생 일동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교수님께 배웠던 소중한 기억과 학우들과의 우정이 되새기며, 은사님의 정년을 기리고자 모교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에게 있어 큰 울림이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작은 증표이자, 후배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토론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의 성함이 새겨진 이 공간을 오가는 후배와 교수님들께서 현판을 보시며 저희가 느꼈던 감사와 소중함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가 교수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자, 그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언제나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박정희 창의LAB' 세미나실은 후배들에게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학문 활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결실이 다시 졸업생들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신입생이 함께한 학생회관의 새 시작

### 25학번 박지형·이은혜 학우

지난 26년간 학우들의 쉼터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캠퍼스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에 신입생들이 기부로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학우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회관 리모델링이 지닌 의미와 미래를 함께 엿본다.

#### Q.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지형:** 현재 전자-기계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인 25학번 박지형입니다.

**이은혜:** 경제정책학전공 경제통계학부에 재학 중인 25학번 이은혜입니다.

#### Q.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부를 하게 됐는데,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지형:**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앞으로 저와 재학생들, 그리고 미래의 후배들이 사용할 건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혜:** 내가 속한 학교가 더 발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회관은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추억을 쌓는 공간이기에 그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Q. 기부를 통해 기대되는 대학생활의 모습이 있나요?

**박지형:** 동아리방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동아리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학생회관에서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은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새롭게 바뀐 학생회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Q. 이번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박지형:** 저는 기부를 늘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편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부는 뿌듯함과 자부심,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소중한 경험을 깨달았습니다.

**이은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작은 실천을 했다는 의미로 남게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첫 순간이었습니다.

#### Q. 기부를 고민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박지형:** 기부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나눔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길게 고민하지 말고 실천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은혜:**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학교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과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형:** 저는 이 캠퍼스가 가진 가능성과 비전을 믿습니다. 재학생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교의 미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생회관 리모델링처럼,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캠퍼스를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학교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회관 리모델링 전면 조감도

## 학생회관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 기부

###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권오섭 회장이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 30억 원을 기탁한 것으로 10억 원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10억 원은 고려대 의료원으로 가게 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새롭게 조성될 학생회관은 학습, 휴식, 교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권 회장이 고려대학교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 원에 이른다. 그는 2016년 '메디힐 지구환경관' 설립을 위한 120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체육발전기금(10억 원), 럭비부 후원(1억 원), 외국인 장학금(1억 2,000만 원), 의료원 손 세정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학교를 지원해왔다. 2023년에는 의학발전기금 50억 원을 기탁하며 안암병원 신관 대강당 '메디힐 홀' 설립을 이끈 바 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권오섭 회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간 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관 리모델링 내부 조감도

## 학생회관 리모델링,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관 리모델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년간 쉼터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던 학생회관은 이제 단순한 복지 공간을 넘어,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학생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설비·전기·인테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은 지난 26년 동안 학생들의 쉼터이자 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고대다움'을 계승하고, '고대 문화'를 이어가는 중심 공간으로 함께해왔다. 그러나 천장재 들뜸, 누수, 노후 전기시설 등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에 학생 편의 시설 확충과 복지 공간 개선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고 공정의 약 50%가 진행된 상태다. 이번 공사에는 석면 철거, 옥상 방수, 천장 공사와 외부 마감 보수 등 건축 전반의 보강은 물론 전기용량 증설과 전등 교체, 통신 배선 정비 같은 전기·통신 개선이 포함된다. 또한 온수보일러 교체와 냉난방 시스템 정비 등 기계 설비 보강과 함께 학생식당과 메인홀, 진달래관 등 주요 공간의 인테리어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총 1,226,152,000원이 모금되었고 193건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졌다. 이 소중한 기금은 학생들의 복지 공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완공 후의 학생회관은 고대 문화를 계승하고 고대다움을 이어가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5년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25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납입액(원) 기준(금액, 성명순)

## 10억 원 이상

엘엔피코스메틱(주)
김병수 의과학과 교수
뿌리교육재단
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

## 3천만 원 이상

Joh Foundation
고려대학교교우회(2)

## 1천만 원 이상

(재)고려대학교교우장학회
(재)미산장학회
(주)도시미학디앤씨
(주)인포벨리코리아 새내근로복지기금
박정희 교수님 연구실 졸업생 일동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벤처주재단
오광욱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유명우 도시및지방행정학과 88
이기용 약학과 교수
전찬웅

## 5백만 원 이상

(재)DB김준기문화재단
(재)격암문화재단
(재)과천시에향장학회
메가스터디교육(주)
박재형 교수
이주형 교수
이형선 사무처 부처장
장철우 교수
재단법인 메디힐장학재단

## 3백만 원 이상

KDBS졸업생동우회
김주희 교수
김효민 중국학과 교수
미래의동반자재단
변영주 약학과 교수
최종택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클라비엔에이지(주)
홍석경 교수

## 1백만 원 이상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재)연당장학회
(재)연재장학재단
(재)일산장학회
(주)노바렉스
고대교우회 대전총남지부
권기만 교수
김경년 총무팀 주임
김기성 경영학부 11
김선혁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김정우 문화콘텐츠전공 교수
김종승 교수
김준혁 교수
박성규 약학대학 교수
박성두 교수
박호성 교수
배상현 교수
이관우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이병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재단법인정암장학회
조민호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주식회사 제이앤피메디
최수안 약학과 교수
한순영 약학과 특임교수
황명진 공공사회학전공 교수
황한정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 1백만 원 미만

WANG QIANG
가신현 문화창의학부 교수
강민성 교수
강신후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강찬석 교수
강충현 교수
강태상 시설안전팀 부장
강한진 교수
강혜정 교수
고대근 교수
고상문 교수
고왕인 교수
고창환 교수
공선식 평가분석팀 주임
공영경 교수
곽미정 직원
곽민지 대학원연구교육팀 주임
곽병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곽인호 교수
곽태호 교수
곽환봉 교수
구경완 교수
구상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구현오 교수
권광호 전자기계융합공학과 명예교수
권민식 학생
권영훈 교수
권정훈 교수
김갑년 글로벌학부 교수
김경봉 교수
김경임 약학과 교수
김경화 교수
김광수 교수
김광훈 문화창의학부 교수
김기수 교수
김기환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김다솜 교수

김대원 교수
김도형 산학교육센터 차장
김동석 교수
김동우 교수
김동욱 교수
김동주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김동환 교수
김득일 직원
김량애윤 영미학전공 교수
김명국 교수
김명기 스포츠과학전공 교수
김명섭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김명준 학생
김무송 교수
김민겸 교수
김민근 교수
김민섭 교수
김민수 교수
김민종 교수
김민호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김병한 교수
김상봉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상호 스포츠과학전공 교수
김선영 교수
김성재 학생
김성태 교수
김성표 환경공학과 교수
김세민 교수
김세영 기획예산팀 직원
김순범 교수
김승규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교수
김시연 교수
김영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기 교수
김영복 교수
김영완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김영진 환경공학과 교수
김영진 세종비서실 차장
김용현 교수

김우철 교수
김윤정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김운태 공공사회학전공 교수
김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은성 영미학전공 교수
김이현 교수
김재기 교수
김재년 총무팀 부장
김재영 표준·지식학과 교수
김재원 교수
김재원 교수
김재윤 학생
김재인 교수
김정환 학부모
김종택 교수
김주희 학생
김준화 교수
김지원 총무팀 과장
김진국 교수
김진민 표준·지식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
김진우 교수
김차용 스포츠비즈니스전공 교수
김창국 스포츠과학전공 교수
김창용 교수학습정보센터 과장
김태근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김태범 세종교양교육센터 차장
김태윤 교수
김태주 교수
김한준 약학과 교수
김현철 교수
김형엽 영미학전공 교수
김형우 교수
김혜숙 교수
김호열 교수
김훈 교수
김휘 전자·정보공학과
김희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나강민 학생

나병수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나우종 교수
나혜수 융합경영학부 교수
남경하 교수
남궁영화 교수
남기문 교수
노성종 교수
노순민 시설안전팀 과장
노재성 교수
도이구 교수
동양종합상사
류재윤
류택림 학생생활지원팀 부장
마재형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맹지성 교수
모경민 교수
목지연 기획예산팀 직원
문동영 교수
문승훈 해외교류팀 직원
문정모 강사
문창순 기획예산팀 차장
민병학 교수
민영훈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박강박 전자·기계융합공학과 교수
박경연
박귀현 교수
박대회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도현 교수
박민수 교수
박병선 환경공학과 교수
박봉식 교수
박상수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박상용 교수
박상운 학생
박성문 입학팀 직원
박연미 약학대학행정팀 차장
박영후 교수
박우욱 교수
박유희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박은별 교수
박장미 교수
박정희 신소재화학과 교수
박종범 일반
박종찬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박종탁 교수

박지형 학생
박진규 교수
박진수 교수
박철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박철원 학생
박철평 교수
박해량 융합경영학부 교수
박형동 교수
방병선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배준서 스마트도시학부 교수
배형진 교수
백승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백영재 교수
백종수 교수
변남균 교수
변상혁 교수
변정수 교수
변하섭 교수
산들약국
서민석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서민지 교수
서성규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서자경 세종경력개발센터 직원
서지현 교수
석진철 교수
선미옥 교수
성민수 학생
성시종 교수
손영도 영미학전공 교수
손준호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손치부 교수
손호진 신소재화학과 교수
송경환 교수
송문호 교수
송미영 강사
송민정 교수
송수진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송채윤 과학기술대학·융합과학대학 원행정팀 직원
송혜숙 학부모
송혁기 한문학과 교수
신광철 교수
신민혁 교수
신승호 교수
신우홍 교수
신진용 교수

신현구 교수
심광호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안다운 교수
안상식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안승호 교수
안인경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교수
양지운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양현성 교수
염민수 교수
오만규 교수
오상우 교수
오승민 문화스포츠대학행정팀 차장
오시문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오웅 교수
오주석 스마트도시학부 교수
오준영 재무팀 직원
우현구 교수
원종관 교수
유경철 중국학전공 교수
유광우 교수
유성근 교수
유수지 교수
유재현 디지털경영전공 교수
유정훈 세종창업지원센터 교수
유준해 교수
유혜정 글로벌학부 교수
육기호 교수
윤관호 교수
윤도상 교수
윤상근 교수
윤성은 학생생활지원팀 직원
윤용찬 교수
윤원식 입학팀 차장
윤재영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종필 재무팀 차장
윤홍식 교수
이강근 교수
이건봉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건주 학생
이경민 교수
이경아 교무학사팀 차장
이경환 교수
이경훈 교수
이규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금원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이기호 약학과 교수
이기환 교수
이대성 교수
이동현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동현 행정전문대학원행정팀 과장
이명섭 교수
이민지 교무학사팀 직원
이만철 교무학사팀 부장
이범종 교수
이병배 입학팀 부장
이상길 총무팀 과장
이상민 교수
이상욱 시설안전팀 차장
이수정 교수
이수진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수호 교수
이승규 응용수학과 교수
이승우 교수
이연주 응용수리과학부 교수
이우진 학생생활지원팀 주임
이원길 교수
이원호 교수
이윤정 글로벌비즈니스대학행정팀 차장
이은혜 학생
이은희 약학과 교수
이인희 교수
이재순 시설안전팀 과장
이재우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이재우 환경공학과 교수
이재욱 학생생활지원팀 과장
이재준 학생
이재진 교수
이재훈 교수
이정기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이정훈 교수
이제영 교수
이종근 교수
이종무 총무팀 부장
이종민 교수
이주용 교수
이준서 교수
이진협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학전공 교수

이창호 평가분석팀 부장
이충용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이태원 응용수학과 교수
이현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
이형진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혜라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이혜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이호용 교수
이희준 교수
임병배 공공정책대학행정팀 차장
임신원 교수
임재천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
임재철 학생
임재현 학생
임준형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임형탁 교수
장석근 교수
장산규 학생
장용 글로벌학부 교수
장우성 교수
장윤서 세종RISE사업단사업관리팀 팀장
장정희 교수
장홍석 교수
장훈 융합경영학부 교수
전경남 글로벌학부 교수
전상구 교수
전수영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전승훈 교수
전영호 약학과 교수
전현식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전현택 세종경력개발센터 주임
정권재
정규연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정다현 교수
정명철 교수
정수욱 교수
정승영 교수
정승환 첨단반도체공정장비인재 양성사업단 주임
정영지 세종에코인력신용융합대학 사업단 직원
정영조 세종창업지원센터 직원
정용화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정원희 과학기술대학행정팀 팀장
정윤재
정은경 교수

정인상	총무팀 과장
정장현	한국어센터 부장
정재화	전자-기계융합공학과 교수
정주노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정지훈	교우
정진만	학술정보팀 부장
정태하	학생
정하림	총무팀 직원
정호열	교우
정효림	교우
제갈현	교우
제상영	경제통계학과 교수
조경호	학생
조덕희	교우
조성원	경제정책학전공 교수
조용민	융합경영학부 교수
조윤성	교우
조은성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조은혜	교우
조제홍	대학원연구교육팀 부장
조주환	일반
조해벽	학생
조현구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중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조형식	학부모
주성기	교우
지호진	교우
진서훈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진영민	교우
차상태	예비군연대장
차영기	교우
천성우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최두호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최민석	교우
최민준	대외교류팀 부장
최보승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최상은	약학과 교수
최석봉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최성욱	교우
최성진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
최순일	시설안전팀 주임
최영미	학부모
최왕규	교우
최원락	교우
최재문	교우

최재혁	학생
최지협	IT지원팀 직원
최지환	교우
최현철	교우
최형재	경제통계학부 교수
하서연	청무팀 직원
하은환	생명정보공학과 교수
하재연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한미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한복경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한상훈	약학과 교수
한진욱	교우
한창희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한호성	교우
함호근	교우
허영민	교우
허화영	교우
홍문표	응용물리학과 교수
홍석경	기획예산팀 부장
홍용석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홍정화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홍종열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주영	학생
홍지연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홍진기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홍청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황성필	신소재화학과 교수
황운재	데이터계산과학전공 교수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화(주택/직장)
	*휴대폰	직장명 부서	
	Email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변화	<input type="checkbox"/> 1구좌(2만 원)	<input type="checkbox"/> 3구좌(6만 원)	
	<input type="checkbox"/> 5구좌(10만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좌 (            )구좌 (            )만 원	
*빛나는 미래를 향한 도전	<input type="checkbox"/> 1구좌(2,000만 원)	<input type="checkbox"/> 2구좌(4,000만 원)	
	<input type="checkbox"/> 3구좌(6,000만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좌 (            )구좌 (            )만 원	
*기금 사용처 및 용도	<input type="checkbox"/> 지정	건축기금(세종학생회관리모델링)	
*납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납부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분납(            )개월	납부 기간:	부터            까지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교직원 번호: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b>하나 55-1004-1004-1004 / 국민 455801-04-030916</b> (예금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기금 약정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의 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주택·직장·휴대폰), 이메일, 본교관계, 학과, 학번, 기부(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약정일, 직장, 부서, 직위, CMS 이체시 은행계좌정보(계좌명·계좌번호·예금주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금운영방식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를 보관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_\_\_\_\_(서명:            )